

표류하던 평화실천사업 ‘재정립’

제주평화포럼·4·3관련사업 제외한 나머지 사업 정제
도, 제주형 평화의 섬 실현 14개 신규사업 추가 발굴

정부가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17대 평화실천사업을 확정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정부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7대 사업을 시대적 기류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정립하고 14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을 맞이해 기존 17대 평화 실천사업 재정립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구상’ 용역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제출한 ‘평화실천사업 2.0 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17대 평화실천사업 중 완료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설비,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제주4·3 추모일 지정, 남북민족평화축전에 그쳤다.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사업,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사업으로 분류된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북한 감공보내기 운동, 제주평화포럼 정례회,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제주4·3 유적지 관리, 평화교육지원,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국제기구 설립·유치 사업 중 제주평화포럼과 제주4·3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글로벌 평화 협력 신규사업으로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한중일 도시시민대화 제주 개최 ▷제주도 평화 ODA사업을 추가했다. 남북교류 협력 신규사업으로는 ▷한라-백두 남북한 관광협력(5+1 재구성)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

학술연구 및 보존협력(5+1 재구성) ▷평화크루즈와 동북아시아 관광협력(5+1 재구성) ▷제주-북한 소통채널 구축을 담았다.

4·3 평화 신규사업으로는 국내의 사료조사를 통한 4·3 진상규명 확대를 발굴했다. 평화산업 신규 사업으로는 ▷국제평화산업 회랑 구축 ▷증강현실을 활용한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제주그린빅뱅 평화에너지 사업(일부 5+1 재구성) ▷확장된 평화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선정했다. 평화문화 확산 신규사업으로 제주형 평화교육 개발과 제주평화주간 지정을 포함시켰다.

채종협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장은 “신규사업은 제주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회를 향한 제주형 평화의 섬 실현’을 비전으로 4·3의 화해·상생정신 아래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확장된 평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동홍동 선거구 <2> 미래통합당 오현승

“봉사자 정신으로 지역현안 해결할 것”

공영주차장 복층화 확충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공약
“동홍동 새 도약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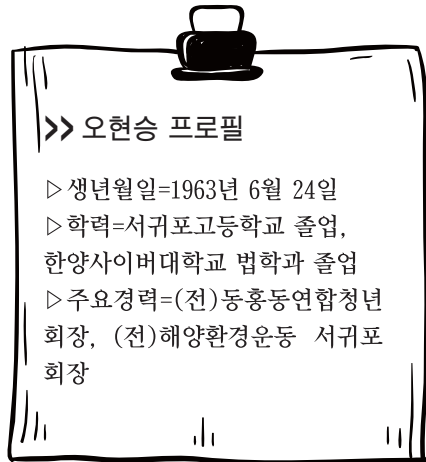
▶출마 결심 이유는=동홍동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과거 인구가 적었던 동홍동 지역은 1990년대 주택지 개발로 인해 현재는 인구가 많은 서귀포시 중심동으로 발돋움 했다. 이제 동홍동은 제2도약을 할 시기가 됐다. 그러기 위해 경험있는 일꾼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필요하다.

저는 50년 이상을 한결같이 동홍동에서 살아왔고, 그동안 고향을 위해 많은 봉사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환경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동홍동을 변화시켜 나가고 동홍동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해 항상 동홍동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봉사자의 정신으로 지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헬스케어타운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헬스케어타운은 당초 계획했던 의료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도민과 서귀포시민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최근에 족부치료 전문병원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었다. 족부병원을 시작으로 현실에 맞는 의료관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현승 프로필

▷생년월일=1963년 6월 24일
▷학력=서귀포고등학교 졸업, 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경력=(전)동홍동연합청년회장, (전)해양환경운동 서귀포 회장

또 헬스케어타운은 해외자본유치에서 국내자본유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에 입성한다면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부가 제대로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와 함께 견제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첫째, 지역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시설 확충이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설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차난 해소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둘째, 전통문화유산 발굴 보전이다. 잊혀져가는 동홍동의 옛 지명과 유산들을 발굴하고 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역사와 전통을 재정립하겠다.

셋째, 동홍천 산지물 주변 건강공원 조성이다. 동홍천 일대 힐링 도로를 재정비해 동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명품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넷째, 동홍동 음식 특화거리 조성



미래통합당 오현승 예비후보는 봉사자의 정신으로 지역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다. 침체돼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을 위해 기존의 음식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해 명품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저의 장점은 동홍동에서 태어난 뒤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보다도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지역의 풀어야 할 현안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발 앞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 20년동안 지역에서 여러 단체활동을 해 오면서 동홍동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도의회에 입성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해 동홍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어르신 장애인 위한 기표용구 내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6일 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기표용구를 보여주고 있다.

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12곳 폐쇄 추진

청문 절차 후 폐쇄명령 예정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가 단계별로 추진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에 소재한 1·2단계 적법화 축사 중 미이행 12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307

개소에 대해 2014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2·3단계별로 축산업등록이나 자진폐쇄 등 적법화 추진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중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점진적

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 관내 적법화 대상은 307개소로 1·2단계(축사면적 400~600㎡ 이상) 185개소, 3단계(400㎡ 미만) 122개소다. 적법화는 1·2단계 축사는 2019년 12월 10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1·2단계 185개소 중 114개소, 3단계 122개소 중 13개소다.

시가 축산농가의 설 명절 특수에 따른 가축저분기간 유예요구를 수용해 지난 2월 실시한 1·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 결과 기존 1·2단계 미이행 농가 71개소 중 적법화 이행 46개소, 추진중 13개소, 미이행 농가는 12개소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2개 미이행농가에 위반확인서를 징구했고,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 통보서를 보내고 5월쯤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기간내 이행여부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33명 해녀 명맥 잇는다

직업해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법환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지역 내 어촌계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5년 설립한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150명 중 33명이 지역내 어촌계에 신입해녀로 가입해

물질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 30대 12명, 40대 6명, 50대 14명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어촌계에 가입한 신규해녀들이 물질 초기 수입이 낮은 점을 감안해 만40

세 미만에게 월 30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는 정착금을 받고 있는 해녀가 13명이다.

이처럼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보전·전승하는 직업해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제6기 직업해녀양성과정 참가자를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땅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시식, 청진가시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